



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

만 18세 이상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,
즉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선거일을 기준으로 18세가 되는

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도 '선거권자'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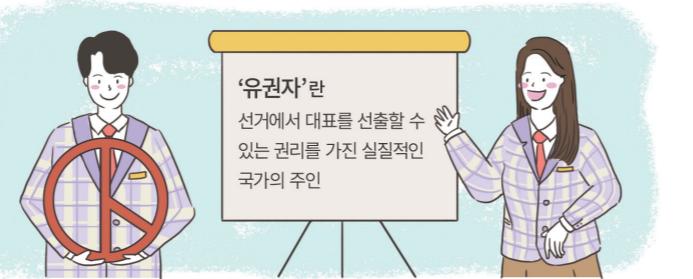
이제 여러분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

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보세요!

I 18세,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!

■ 유권자의 의미

유권자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.



* 선거권 연령 기준

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 유권자는 2020년 4월 15일까지 만 18세가 된 사람입니다. 즉,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(4월 16일 포함)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■ 유권자의 교양



■ 투표로 만드는 세상

'나 하나쯤이야'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한 표가 언제,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결정할지 모릅니다.



투표 참여를 단지 선택할 권리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할 '우리의 목소리 내기'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.

II 선거, 어렵지 않아요!

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



■ 선거과정 한눈에 보기



■ 투표, 이렇게 합니다!

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4월 15일이며,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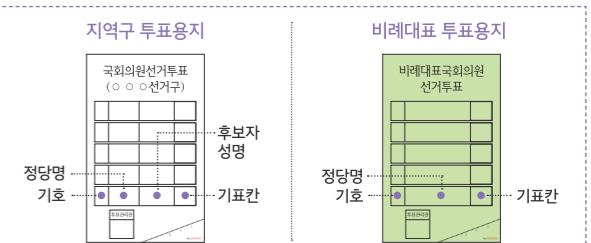
※ 신분증은 꼭 지참하세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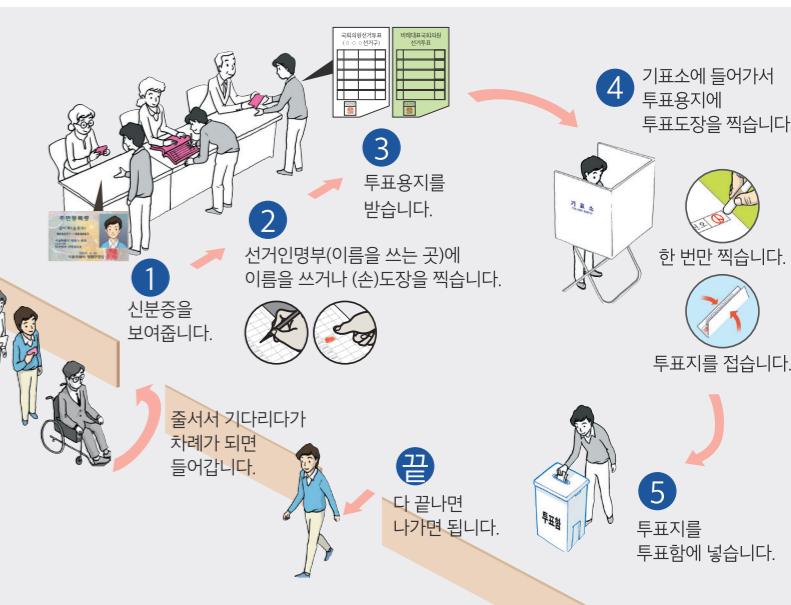
-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 발행, 사진이 첨부된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
-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, 국가유공자증, 장애인 복지카드, 외국인등록증, 자격증, 학생증(사립학교 학생증 포함)

■ 투표용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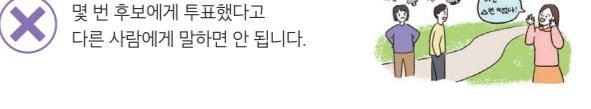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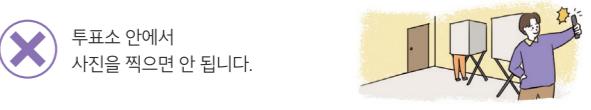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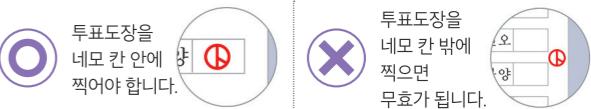
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에게 한 표,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에 한 표, 색깔이 다른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 합니다.



■ 투표하는 방법



■ 올바른 투표방법





질문 있습니다!

■ 사전투표

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(4월 10, 11일 /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) 동안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.



III 선거운동,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

■ 선거운동이란

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
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



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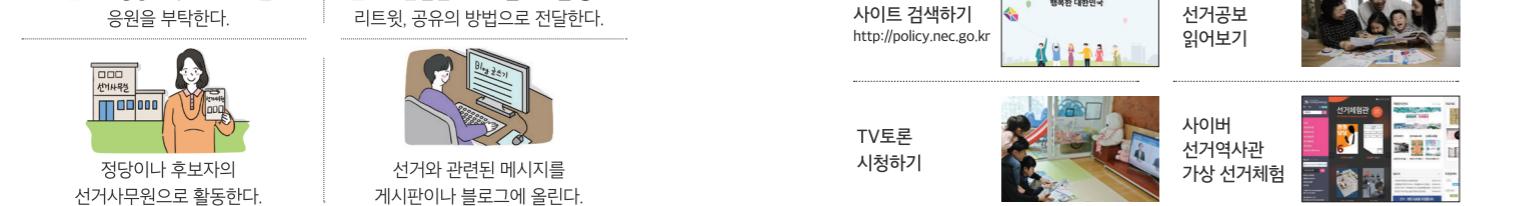
■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



■ 제 선택은 제가 할게요!



■ 선거정보 알아보기



■ 인터넷, SNS 그리고 가짜뉴스 주의점



■ 뉴미디어 활용의 부정적 현상

■ 불법 선거운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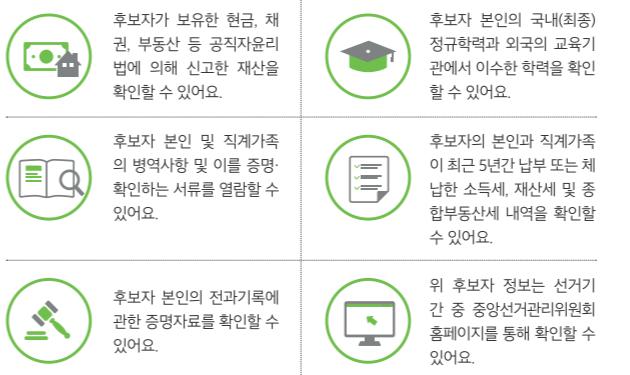


■ 정당·후보자 분석



■ 납세, 병역, 학력 등 후보자 정보

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(www.nec.go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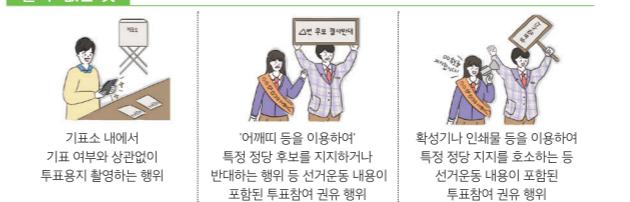


■ 투표참여 캠페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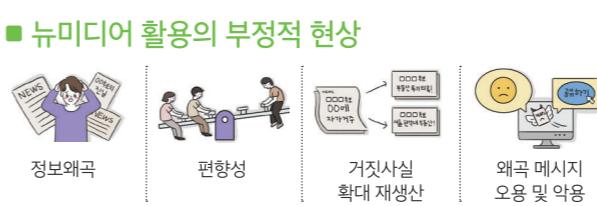
할 수 있는 것



할 수 없는 것



■ 인터넷, SNS 그리고 가짜뉴스 주의점



■ 뉴미디어 활용의 부정적 현상

Q 선거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?

- 아닙니다. 선거운동은 만 18세 이상의 선거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도 학급 친구들과 함께 정당이나 후보자,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을 나누어보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.
- 또한,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은 선거일 기준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.

Q 내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이 있나요?

- 선거운동기간(4월 2일부터 14일까지)에 말과 전화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권유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전화의 경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금지됩니다.
-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평소에는 문자메시지, 인터넷 홈페이지, 전자우편, 페이스북, 카카오톡, 유튜브, 트위터 등 온라인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

Q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? 기숙사에서는요?

- 학교의 교실은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'호'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2개 교실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 기숙사도 마찬가지입니다.

Q 옷에 좋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있는 배지를 부착하거나 모자 등을 착용할 수 있나요?

- 특정 정당, 후보자의 명칭이 기재된 배지 등 표시물을 배부·착용할 수 없습니다.

Q 친구가 사주는 식사를 먹는 것도 위반행위인가요?

- 평소처럼 친구가 사주는 식사를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, 그 친구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식사를 사준다면 사준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정중히 거절합니다.

Q 학교 동아리에서 후보자들을 초청해 공약을 듣거나 궁금한 점을 물어봐도 될까요?

- 동아리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로서 후보자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.

Q 투표소에서 기념사진을 찍어도 되나요?

- 투표소 입구에서는 짐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엄지손가락, V자 등의 표시를 하며 기념사진을 찍어도 괜찮습니다. 그러나 기표소 내에서는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.

Q SNS에 좋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소식이나 영상을 올려도 되나요?

- 물론 가능합니다. 그러나 그 소식이나 영상이 거짓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은 아니어야 하겠죠.